

동물자유연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 자유 연대



02 인사말

03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CI

04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05 조직과 공간

06 주요활동

07 함께하는 사람들

08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파트너십 및 협업

동물과 함께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향해

동물자유연대는 2000년 당시 동물권·동물복지 인식이 척박한 사회 환경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출범했습니다. 동물의 처우와 처한 환경이 열악한 만큼 인식의 장벽도 견고했고 우리는 소수였지만, 함께 모은 우리의 열정으로 장벽을 제거하고, 두려움은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물시민운동을 이어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처음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출범한 국내 최초의 동물운동단체답게 우리 사회에 견고한 동물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물학대 예방, 유기동물 입양 문화 조성,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농장동물 복지 향상, 사육곰 종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제돌이’ 등 전시 돌고래 방류 캠페인의 성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감동의 기억을 남겨주었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에 의해 드디어 이룩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은 한국동물운동사에 기리 남을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본 철학은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귀하며, 그 삶과 죽음은 존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태어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한 변화는 작은 관심과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소비 습관, 반려동물 입양 방식에서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동물이 존중받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생명존중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며,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 02 인사말
- 03 동물자유연대는**
- 동물자유연대 CI
- 04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 05 조직과 공간
- 06 주요활동
- 07 함께하는 사람들
- 08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 파트너십 및 협업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동물에게 인도적인 대우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터전을 잃거나 희생되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입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존중과 책임 있는 공존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 동물보호법 개선, 농장동물 복지, 동물실험 반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도 자유가 권리가 되는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태적 조화란 인간 또한 생태계의 부분으로서 동물의 지배자가 아닌 공존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 윤리적 조화란 자아가 있는 지적 생명체로서 인간이 이웃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CI



동물자유연대의 CI는 Animal의 ‘A’를 활용해 동물과 인간(人)의 형상을 동시에 표현하며, ‘동물과 사람이 윤리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라는 동물자유연대의 지향점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용 색상



KAWA Orange



KAWA Blue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을 대하는 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 신뢰 기반의 투명한 활동

우리는 언제나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활동 과정을 시민과 정직하게 공유합니다.

● 공감을 이끄는 따뜻한 소통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실천

법·제도 개선부터 구조·입양까지, 정책과 현장을 잇는 균형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기존의 틀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춘 혁신적 캠페인과 협업을 시도합니다.



← 04 →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 - 02** 인사말
 - 03**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CI
 - 04**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 05** 조직과 공간
 - 06** 주요활동
 - 07** 함께하는 사람들
 - 08**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파트너십 및 협업

-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 관련법 제정 활동 성과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잔혹한 동물학대에도 벌금 20만 원에 해당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법 정비와 정책의 토대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기였기에 동물자유연대는 창립과 동시에 입법 활동을 통해 수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신법 제정,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야사법 개정, 개식용종식특별법 등 입법 활동에 주력하며 성공시키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 입양' 사회적인 인식 구축과 확장

버려지거나 학대에 방치된 동물을 구조하고 새 가족과
새 삶을 누리게 하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00년대 초 당시엔 동물에게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우리는
정착시켰고 지금은 보편적인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엔 KBS 뉴스에 의해 동물입양을
권장하는 보도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는 공중파 방송의
뉴스로 동물입양을 확대하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식 전환을 견인

동물자유연대는 세계동물보호협회(WAP)와 함께
2005년에 ‘반려동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동물복지
의제를 논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고, 이 자리를 통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칭해야 한다는 수많은
보도를 이끌어내며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 인식을
확장했습니다.

농장동물복지 실태 조사 및 케이지 프리 캠페인 성과

동물단체의 국내 첫 사례로써 2005년
농장동물복지실태조사(돼지)를 시작으로 2007년 KBS
환경스페셜 2부작(돼지, 닭) 협업과 다수의 현장 조사와
언론 협업을 통해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폐해와 동물의
고통을 사회적인 문제 인식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정부의 축산물 동물복지인증제 도입 계기와 유통
대기업 풀무원 등에 케이지 프리 계란 유통(2028년
100%)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선진형
반려동물복지시설 온센터 개관

2013년, ‘동물보호소를 생존형에서 복지형으로’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보호소 동물에 대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린 온센터 온독을 개관하고 2022년 온센터
온캣을 개관함으로써 개와 고양이를 분리 보호하며
종 특성을 고려한 동물복지시설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선진적인 보호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사회에 동물복지형 보호시설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7마리 방류와 돌고래 전시 금지 완성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에 이용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 몰수와 더불어 7마리 방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퍼시픽랜드(현 호반 퍼시픽리솜)에 불법
감금된 4마리의 방류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없어서 몰수형
선고가 지체될 때에 동물자유연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대공원이 방류 훈련을 협업하는 조건으로 몰수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돌고래 방류 운동이 탄력을
받으며 2013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7마리
방류를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2022년 돌고래 전시 금지 입법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육곰 구호 및 웅담 채취 곰 사육 종식 입법 성과

2013년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참여로
사육곰 중성화 사업을 이끌어내며 곰 사육 금지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사육곰 22마리를 구조하여
2022년 미국 TWAS의 야생동물보호 구역으로 이주시켜
생태적 환경에 곰들을 정착시키는 한편 정부와 협상 및
입법 활동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부로 곰 사육을
종식하는 야생생물법 개정과 남은 사육곰 구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문제 및 말 복지 활동

촬영 소품으로 취급되며 죽음과 학대에 방치된
2021년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퇴역 경주마 문제 인식을 확산시키며
승마체험산업실태조사연구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갑니다.
연간 천 마리가 넘게 은퇴하는 경주마 실태를 토대로
번식 제한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이력제 등 막 복지 체계
구축에 노력하며 실효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물권·동물복지 연구와 학문화를
통한 전문성 구축

동물자유연대는 2023년 성공회대학교에
동물아카데미 개설을 시작으로 2024년 ‘동물권과
사회 연구’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물과미래포럼’을 창설해 동물권’ 동물복지 연구와
학문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권
정립과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과 산업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 **2000** ~

2001-2010

2011-2020

2021-현재

조직과 공간

- 02 인사말
- 03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CI
- 04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 05 조직과 공간**
- 06 주요활동
- 07 함께하는 사람들
- 08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 파트너십 및 협업



동물자유연대는 2000년 봉사활동모임으로 시작해, 오늘날 약 80여 명의 활동가가 상근하며 일하는 전문 동물보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처

전략사업국 | 정책팀, 위기동물대응팀, 사회변화팀

경영지원팀, 회원모금팀, 홍보팀, 나눔사업팀

온독

동물복지국 | 입양팀, 동물복지팀

기획운영팀, 홍보캠페인팀

부속동물병원

온캣

동물관리팀, 입양홍보캠페인팀

법률지원센터

동물과미래포럼 | 동물권/동물복지 연구지원

사무처

사무처는 구조와 캠페인, 연구와 정책변화, 모금관리 및 운영과 지원, 홍보역할을 수행합니다.



온센터(온독)

2013년 남양주에 개관한 ‘온독(ON DOG)’은 국내 최초의 ‘동물복지형’ 보호소입니다. 위기의 동물들에게 안전한 보호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 교육, 진료, 캠페인을 통합 운영하며,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복지 중심 보호소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센터(온캣)

2022년 파주에 개관한 ‘온캣(ON CAT)’은 고양이에 특화된 국내 최고 ‘동물맞춤형’ 보호소입니다. 고양이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설계와 관리로 복지 중심 보호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입양 연계 및 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동물 보호, 구조, 입양, 복지 개선, 법·제도 변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 02 인사말
- 03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CI
- 04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 05 조직과 공간
- 06 주요활동**
- 07 함께하는 사람들
- 08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파트너십 및 협업

● 온센터 (온독·온캣)

온센터는 구조 후 돌봄, 행동 교정, 입양 연계까지 전문적 동물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야외활동장과 전문 인력을 갖춘 시설에서 동물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닌, ‘존엄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말 복지 구축

경주마, 승마체험용 말의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불법 방치, 도축 실태를 밝혀내며 말의 전 생애 복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다큐 제작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도 확대해왔습니다.



●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등 다양한 법안의 입법·개정에 앞장서왔으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케이지 프리

케이지프리 캠페인을 통해 산란계가 A4 절반 크기의 철창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까지 풀무원, 갤러리아, 스타벅스 등 다수의 기업이 전환을 약속했고, 소비자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 개 식용 종식

1999년 개 식용 합법화 저지 활동을 계기로, 2000년에 설립된 동물자유연대는 수십 년간 집회, 구조, 실태조사, 입법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통과되며 한국 사회는 반려동물을 음식이 아닌 존중되어야 하는 생명이자 가족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습니다.



● 사육곰 해방

현장 조사, 시민캠페인 사육곰종식 입법 활동을 하며 사육곰 22마리를 미국의 보호시설로 이주시킨 것을 시작으로 남은 사육곰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곰도 철창이 아닌 생추어리에서 습성에 맞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강아지 공장 폐쇄

생명이 ‘상품’이 되지 않도록 불법 번식장에 갇힌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조하고, 번식업 실태를 폭로해 정부 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상품이 아닌 생명으로,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합니다.



● 동물 전시 반대

제돌이의 방류를 시작으로, 돌고래 쇼 금지, 동물원 환경 개선, 해외 생추어리 이주 등 전시 동물의 권리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해양 수족관, 미디어, 지자체 대응 등 다양한 전시 사례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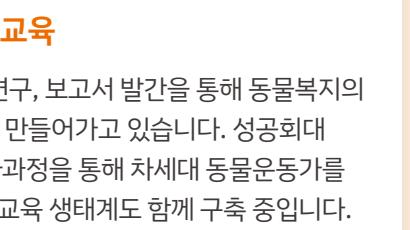
● 동네고양이 공존

우리의 작은 이웃인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TNR(중성화)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네고양이와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존 모델을 제시합니다. 고양이 학대 사건 대응과 ‘사랑의 재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 위기동물 구조·지원

학대, 유기, 재난 등 위기에 처한 동물 구조에 힘쓰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의 책임을 위해 사료, 치료비, 민간보호소 지원 등 다양한 나눔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연구·교육

각종 실태조사, 제도 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동물복지의 과학적·정책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동물 아카데미 및 석사과정을 통해 차세대 동물운동가를 양성하며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도 함께 구축 중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동물자유연대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과 손길로 성장해왔습니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입양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 02 인사말
 - 03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CI
 - 04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 05 조직과 공간
 - 06 주요활동
 - 07 함께하는 사람들**
 - 08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
- 파트너십 및 협업

“제가 처음으로 후원한 시민단체가 동물자유연대였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다른 단체와 활동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원이 된 이후, 제 일상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사안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꾸준히 활동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모습을 보며 늘 신뢰와 기쁨을 느낍니다!”

— 후원자

“보호소 봉사는 어렵다는 선입견이 사라졌어요.
힘들기보다, 오히려 치유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봉사를 갔다기보단, 아이들 덕분에 큰 선물을
받고 왔구나 싶었습니다. 유기동물을 위한 봉사, 어렵지 않아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 자원봉사자

“우리 흰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간식과 포근한 이불이에요.
세상 모든 개가 그렇듯 ‘흰자’도 자신만의 성격과 취향이
있답니다. 뜬장에서 지냈었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요.
맛있는 간식을 보면 예쁜 미소를 보내주기도 하고
꼭 푹신한 이불 위에서 곤히 잠들어요.
아픈 기억을 잊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온센터 활동가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흰자를 만난 건 행운같은 일이에요.”

— 입양가족



- 02 인사말
- 03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CI
- 04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변화
- 05 조직과 공간
- 06 주요활동
- 07 함께하는 사람들
- 08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 파트너십 및 협업

투명한 운영, 신뢰받는 후원문화

동물자유연대는 매월 회계 내역을 공개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자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구조, 돌봄, 정책, 교육 등 생명 보호와 복지 향상에 사용됩니다.

정기후원



매달 일정 금액으로 동물자유연대의 전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시후원



필요 시 한 번의 후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결연후원



구조 동물 1:1 결연으로 치료, 돌봄, 입양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파트너십 및 협업

동물자유연대는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학교,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 확산, 정책 제안, 시민 참여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CSR 캠페인

기부 연계 상품, 후원 캠페인, 임직원 매칭기부 등

공동 캠페인

브랜드 콜라보 굿즈, 챌린지 캠페인, SNS 콘텐츠 확산

교육 협력

생명존중 교육, 윤리적 소비 강연, 청소년 대상 워크숍 등

정책·연구

동물복지 관련 공동조사, 입법 제안, 전문자료 발간 등

● 11번가 후원 캠페인 '11키티즈'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및 입양 연계 콘텐츠 운영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내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 토스 후원 캠페인

'후원하기' 기능 연동 및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기부문화 유입과 참여 활성화

● 풀무원 케이지프리 전환

유통하는 모든 식용란의 케이지프리 전환 선언(2028년 100% 전환) 및 동물복지 사업 추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캠페인, 입법 토론회, 공공 캠페인 공동 추진을 통해 법·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

● 성공회대학교

동물복지 석사과정 개설 및 시민 아카데미 공동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물운동 생태계 구축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우)04714 | 전화 02-2292-6337 | 팩스 02-2292-6339 | 이메일 info@animals.or.kr